

외국인 유학생 지문등록 ‘찾아가는 서비스’ 호응

광주출입국사무소, 동신대 찾아 304명 지문 등록

이동·대기시간 부담 줄여…체류 지원 ‘적극 행정’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동신대학교 캠퍼스를 직접 찾아 지문등록 서비스를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동신대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협력해 지난 9월 23일과 10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외국인 유학생 지문등록 서비스’를 운영했다고 20일 밝혔다.

나래관 2층 드림팩토리에서 진행된 이번 서비스에는 9월 23일 216명, 10월 19일 88명 등 모두 304명의 유학생이 참여했다.

이번 서비스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외국인등록 절차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입국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유학생들이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필요한 체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동신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일정을 조율하고 담당 직원들이 대학을 방문해 지문 채취 업무를 진행했다. 동신대는 유학생들의 외국인등록 신청 서류를 일괄 접수하고 대상자 안내와 등록 장소 마련 등 운영 전반을 지원했다.

특히 한국의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신입 유학생들의 이동 부담과 대기시간을 줄이고 심리

적 부담까지 덜어줬다는 평가다. 출입국 민원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대학과 관계기관이 협력해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현재 동신대에는 21개국 출신 외국인 유학생 2374명이 재학 중이다. 대학은 국제교육원을 중심으로 비자·체류 관련 행정 지원과 생활 안내,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과 지역 정착을 돕고 있다.

박재민 동신대 국제교육원장은 “유학생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을 직접 찾아 세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신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유학생들이 낯선 환경에서도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하며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동신대학교 캠퍼스를 직접 찾아 지문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제공=동신대학교

함평군 캐릭터 ‘황박이’, 전국 공공캐릭터 대상

온라인 홍보전시관 무료 입점…맞춤형 컨설팅 등 혜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을 대표하는 관광 캐릭터 ‘황박이’가 2026 대한민국 지자체·공공캐릭터 페스티벌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20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역 관광 캐릭터 ‘황박이’가 ‘2026 대한민국 지자체·공공캐릭터 페스티벌’에서 정부·지자체 부문 지역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선싱협회와 대전관광광사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공모는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의 대표 캐릭터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모 본선에서는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진출한 74개 캐릭터가 열린 경연을 펼쳤다.

전문가 심사 점수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반영해 최종 수상작이 결정됐으며, 황박이는 정부·지자체 부문 지역 분야에서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돼 상징성과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수상 혜택으로는 트로피와 상장 수여를 비롯해 온라인 홍보전시관 입점 1년 무료 지원과 캐릭터 맞춤형 컨설팅 등이 제공된다. 군은 수상 혜택을



활용해 황박이의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객과 군민이 일상에서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캐릭터 활용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남호 함평군수는 “이번 대상 수상은 함평군 대표 관광 캐릭터인 황박이의 가치와 매력을 알린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황박이를 활용한 관광 홍보와 캐릭터 상품 개발을 통해 함평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규 기자 6263739@gwangnam.co.kr



지난 18일 열린 ‘2026 전남광주 한마음 걷기축제’에서 박국택 국회의원 (앞줄 가운데), 임은진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신경구 전남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장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외국인 참여 ‘한마음 걷기축제’ 후원

외국인금융센터 상담부스 운영…금융사기 예방 등 안내

광주은행 (은행장 정일선)은 최근 전남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센터장 신경구)가 주관한 ‘2026 전남광주 한마음 걷기축제’를 후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최한 행사는 광산구 향룡진수공원 일대에서 개최됐으며, 지역 내·외국인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주민 1000여명이 참여한 향룡진수공원 일대에 마련된 1.2km 걷기 코스를 함께 걸으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

다. 참가자들은 코스 곳곳에 마련된 체험 프로그램과 미션에도 참여하며 천목을 다졌다.

행사장에서는 세계 전통공연을 비롯해 음식·문화체험, 글로벌 커뮤니티 체험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돼 참가자들이 각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도 마련됐다.

광주은행은 행사 현장에 외국인금융센터 상담부스를 운영하며 외국인 주민들에게 계좌개설 안내와 금융사기 예방 등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제공했다.

고훈 광주은행 외국인금융센터장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주민들이 함께 걸으며 소통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외국인 근로자와 이주민의 금융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2월 지역 금융권 최초로 광산구 흑석동에 외국인금융센터를 개점했으며, 이후 광산구 장덕동으로 이전에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네팔, 몽골,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등 6개국 출신 외국인 직원을 창구에 배치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고려해 일요일에도 영업하는 등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김다현 여수 홍보대사·송재동 ㈜모아 대표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잇따라…여수사랑 실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는 최근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여수시 홍보대사인 가수 김다현씨와 여수 출신 기업인 송재동 (㈜모아 대표)의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2023년부터 여수시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김다현씨는 지난해 200만원을 기부한 데 이어 올해도 300만원을 기탁하며 2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에 동참했다.

여수시 화양면 출신인 송재동 대표는 현재 경북 성주에서 고기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모아)를 운영하고 있다. 타지에서도 고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이어온 송 대표는 이번에 200만원을 기탁하며 여수 발전에 힘을 보탰다.

소중한 기부금은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김다현씨는 “여수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아름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는 최근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여수시 홍보대사인 가수 김다현씨 (오른쪽 두번째)와 송재동 (㈜모아 대표·왼쪽 세번째)의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청

운 풍경과 따뜻한 인심을 느낄 때마다 여수에 대한 정이 깊어진다”며 “올해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여수를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재동 모아 대표는 “몹은 성주에 있지만 마음은 늘 고향 여수에 있다”며 “고향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 기부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새마을문고중앙회 광주시 서구지부는 최근 ‘길 위의 인문학’ 탐방을 통해 채만식문학관을 방문했다.

군산 근대문화 따라 걷는 ‘길 위의 인문학’

새마을문고 광주 서구지부, 주민·회원 100명 탐방

새마을문고중앙회 광주시 서구지부가 군산 근대역사문화를 따라 걷는 인문학 탐방을 진행했다.

새마을문고중앙회 광주시 서구지부 (회장 김옥자)에 따르면 최근 새마을문고 회원과 지역 주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 군산시 일원에서 ‘길 위의 인문학’ 탐방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새마을운동의 기본 정신인 ‘자조·협동·봉사’를 바탕으로 일상 속 독서·인문 문화운동을 확산하고, 지역 간 역사 이해와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탐방단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을 시작으로 시간여행마을, 초원사진관, 신흥동 일본식 가옥, 경암동 철길마을, 채만식문학관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참석자들은 일제강점기 근대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공간을 둘러보며 역사를 이해하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현장에 다양한 역사·문화 체험을 했다.

또 회원과 주민들이 함께 이동하고 탐방하는 과정을 통해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채만식문학관 방문은 군산의 역사와 문학을 함께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 탐방단은 지역의 근대문화유산과 문학적 자산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넓히고, 생활 속 독서문화의 의미를 되새겼다.

김옥자 회장은 “이번 탐방이 주민들이 일상 속 인문 정신을 되새기고 이웃과 함께 공동체적 가치를 나누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독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